

# “류현진 완벽투 양키스 압도했다”

# ‘벼랑 끝’ 부산 kt 고민 한가득

6⅓이닝 비자책 시즌 첫 승·통산 60승 고지 밟아  
송곳 제구에 타선 침묵… 평균자책점 2.69→1.89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이 완벽한 모습으로 시즌 첫 승과 빅리그 통산 60승 고지를 밟았다.

류현진은 14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셰일런필드에서 열린 2021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뉴욕 양키스와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해 6⅓이닝 동안 4피안타 1볼넷 7탈삼진 1실점(비자책점)으로 팀의 7-3 승리를 이끌었다. 시즌 1승(1패)을 기록한 류현진은 시즌 평균 자책점을 2.92에서 1.89로 끌어내렸다.

이날 경기에선 토론토 타자들이 류현진에게 힘을 실어주며 첫 승을 도왔다. 지난 시즌까지 59승 35패를 기록한 류현진은 1승을 추가하며 한국 선수로는 박찬호(은퇴)에 이어 두 번째로 MLB 60승 고지를 밟았다.

투구 내용은 말 그대로 완벽했다. 류현진은 1회 선두 타자 DJ 레미에휴에게 내야 안타를 허용했지만 침착하게 경기를 이어갔다.

류현진의 2회 투구는 눈부셨다. 공 11개를 던졌는데, 이 중 10개가 스트라이크존 안으로 들어갈 정도로 공격적인 피칭을 했다. 류현진이 완벽한 모습을 보이자 토론토 타선도 힘을 냈다. 토론토는 2회 말 2점을 뽑아냈다. 2사 만루에서 조시 팔라시오스가 중전 2타점 적시타를 터뜨렸다.

류현진은 가벼운 마음으로 공을 던졌다. 3회 3명의 타자를 공 8개로 잡아냈고, 4회에도 삼자범퇴 행진을 이어갔다. 5회부터는 위기관리 능력이 돋보였다. 5회 1사 후 히스에게 좌전 안타를 허용했지만, 오도어를 4-6-3 병살타로 유도하며 이닝을 마쳤다.

6회엔 2사 후 브루스에게 우중간 2루타, 레미에휴에게 볼넷을 내줬는데 스탠턴을 투수 앞 땅볼로 유도해 직접 아웃카운트를 잡았다.

7회는 약간 아쉬웠다. 류현진은 선두 타자 저지를 내야 땅볼로 잡은 뒤



14일(한국시간) MLB 양키스전에 선발 등판한 류현진이 호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체스를 풀카운트 승부 끝에 내야 땅볼로 유도했지만 3루수 비지오가 실책을 범했다. 이어 후속 타자 히스에 게 좌익수 왼쪽에 떨어지는 2루타를 허용했고, 1사 2, 3루 위기에서 오도어를 2루수 내야 땅볼로 잡아냈다.

95개의 공을 던진 류현진은 볼펜 투수 데이비드 펠프스에게 공을 넘기

고 임무를 마쳤다. 류현진은 직구 26개, 컷 패스트볼 33개, 체인지업 22개, 커브 14개의 공을 던졌다. 직구 최고 구속은 92.4마일(시속 149km)이었다.

토론토는 류현진이 내려간 뒤 볼펜 투수들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역전을 내주진 않았다. 연합뉴스

프로농구 6강 플레이오프  
외인 브라운 멘탈에 한숨

프로농구 6강 플레이오프(PO)에서 2연패를 당하며 탈락 위기에 몰린 부산 kt가 '1읍선' 외국인 선수 브라운 브라운(36·193.8cm)의 '멘탈' 때문에 한숨을 짓고 있다.

브라운은 2017-2018시즌 인천 전자랜드를 시작으로 4시즌 연속 국내 프로농구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번 시즌엔 개막 한 달가량 지나온 이그부누의 대체 선수로 kt에 합류해 한국 무대를 누비고 있다. 외국 선수치고 키가 큰 편은 아니지만 4시즌 동안 정규리그 평균 21점 10.4리바운드로 준수한 기량을 뽐냈다.

하지만 그는 경기력보다 '갑정 기복'으로 부각될 때가 잦다.

심판 판정에 유독 예민하고 감정 변화가 표정과 행동에 고스란히 나타나 못마땅한 상황이 생기면 무리한 플레이나 파울이 나오는 등 기량에도 영향을 미치곤 한다.

이런 기질은 전자랜드 시절부터 유명했는데, 이번 6강 PO에서도 어김없이 나오고 있다. 불같은 성격에도 각

팀이 아쉬울 때 브라운을 떠올리는 건 기량이 검증됐고 특히 PO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일 거라는 기대 때문인데, 이제 그마저도 무색하다.

1읍선 외국인 선수가 중심을 잡아주지 못한 kt는 6강 PO 1·2차전 모두 후반 역전패로 내주고 벼랑 끝에 섰다. 정규리그까지만 해도 "브라운이 그런 것을 모르고 데려온 게 아니다. 제가 감수할 부분이다"라던 서동철 감독도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듯하다.

6강 PO 2차전 이후 서 감독은 "그런 걸 잡아주는 것도 저의 몫인데, 잘 안 된다. 매일 얘기하는데 못 고친다"며 "PO에서는 좋아질 거로 생각했는데, 더 심해진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그 부분이 저희 팀의 문제점인 건 분명하다. 2차전 패인을 하나씩 짚으려면 그러다"라고 지적했다.

15, 17일 안방에서 이어질 6강 PO 3·4차전을 반드시 잡아와 4강행의 희망을 살릴 수 있는 kt로서 어떻게든 브라운의 사기를 북돋워 전력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서 감독은 "브라운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며 "결국은 제가 풀어갈 속제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온 힘 다해 스파이크 14일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도드람 2020-2021 V리그 남자부 챔피언결정전(5전 3승제) 3차전에서 대한항공 이수형이 강한 스파이크를 날리고 있다. 이날 우리카드의 고비마다 해결사로 나선 알렉스 페헤이라(등록명 알렉스)의 맹활약으로 대한항공을 세트스코어 3-0(26-24 25-19)으로 완파하며 창단 첫 챔피언결정전 우승에 단 1승만을 남겨두게 됐다. 연합뉴스

PSG, UCL 4강으로…  
디펜딩 챔프 뮌헨 격파

첼시 7년 만에 준결승 진출

파리 생제르맹(PSG·프랑스)이 '디펜딩 챔피언' 바이에른 뮌헨(독일)을 제치고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4강에 올랐다.

PSG는 14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랑스에서 뮌헨과 치른 2020-2021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홈경기에서 전반 40분 에리크 막심 추포모팅에게 결승 골을 내주고 0-1로 졌다.

1, 2차전 최종 합산 점수가 3-3이지만 PSG는 원정 다득점에서 앞서며 4강행 티켓을 거머 쥘었다.

지난 시즌 대회 결승에서 뮌헨에 무릎 꿇었던 PSG는 설욕에도 성공하고 첫 우승 도전을 이어갔다.

이날 첼시(잉글랜드)도 포르투(포르투갈)와 2차전에서 졌지만, 4강에 진출했다. 첼시가 이 대회 4강에 오른 것은 2013-2014시즌 이후 7년 만이다. 연합뉴스

SSG 추신수 아직 한국 야구 '적응 중'

느린 직구 고전… 타율 0.185  
"10경기 후 컨디션 찾을 것"

'추추트레인' 추신수(39·SSG 랜더스)가 좀처럼 컨디션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

추신수는 13일 NC 다이노스와 홈경기에서 4타수 무안타 삼진 2개를 기록하며 고개를 숙였다.

시즌 타율은 0.185(27타수 5안타)까지 떨어졌다. 이만큼에 어울리지 않은 기록이다.

추신수는 시즌 초반 3경기에서 무안타로 침묵하다가 8일 한화 이글스전에서 첫 안타를 홈런으로 신고하며 예열 작업을 마친 듯했다.

그는 한화전을 시작으로 3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8일 한화전에서 슬라임 캐치를 하다가 허벅지가 쓸린 여파가 남아있는지,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

그는 11일 LG전에서 몸 상태 문제로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됐고, 선발

라인업에 복귀한 13일 NC전에서 안타를 생산하지 못했다.

NC전 경기 내용은 좋지 않았다. 추신수는 국내 투수들의 140km대 몰린 직구를 정확하게 타격하지 못했다.

그는 1회 상대 선발 강동원 145km 직구, 6회 바뀐 투수 임창민의 143km 가운데 몰린 직구에 헛스윙했다.

뛰어난 선구안을 가진 추신수가 느린 직구를 공략하지 못한다는 건, 몸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시적인 컨디션 난조일 수도. 부상으로 인한 타격 밸런스 문제일 수도 있다.

일단 김원형 SSG 감독은 추신수에게 계속 기회를 준다는 생각이다.

김 감독은 "추신수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며 "다만 시즌 초반 경기 감각을 익히기 위해 너무 빨리 몸 상태를 끌어올리면 몸에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이어 "초반 10경기를 소화하면 정상 컨디션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추신수에 관해선 걱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Table with 5 columns: KBS1, KBS2, MBC, JIBS/SBS, EBS1. It lists TV programs and their start times for the day.

Table for horoscope (운세) for the date 4/15. It includes a section for '오늘의 운세' (Today's Fortune) and a grid of zodiac signs (鼠, 牛, 虎, 兔, 龍, 蛇, 馬, 羊, 猴, 雞, 狗, 猪) with corresponding fortune predictions.